

세계를 바꾼 리더들의 협상 기술



협상의 전략

김연철 지음

21세기는 협상의 시대다. 협상은 문제 해결을 위한 차선책이 아니라 최선의 방법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협상하는가? 그리고 협상에 성공하는 기술은 무엇일까?

사실 폭력과 전쟁이 난무하던 20세기에 '협상'은 전쟁의 선택이라 조롱당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 지역, 기업, 단체뿐 아니라 개인과 개인 간에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인간관계, 사회관계, 국제관계에서 벌어지는 협상의 수준과 방법은 다르지만 주체는 사람이다. 협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상대가 있다. 이익의 기계적인 배분보다 신뢰를 먼저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은 그 때문이다.

인제대 통일학부 김연철 교수의 '협상의 전략'은 세계를 바꾼 리더들의 협상 전략에 초점을 둔다. 저자는 2005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공동선언 현장에 참여했으며 2008년부터 2년간 한겨레평화연구소 소장을 맡기도 했다. 책은 다양한 실무 현장에 참여했던 저자의 노하우와 생생한 사례 등이 담겨 있다.

책은 협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임

해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준다. 지역분쟁 같은 작은 단위의 협상에서부터 국가 간 혹은 다국가 간의 거대한 협상까지 나아가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다양한 협상의 역사를 들려준다.

저자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세계의 전략가들에서 배우는 협상의 기술이다. 협상의 성공과 실패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지도자의 리더십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위기의 13일'이라 불리는 쿠바 미사일 위기 당시 존 F. 케네디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이라는 긴급한 위기 속에서 신속한 토론과 결정으로 대안을 마련했다. 물론 이 협상은 외교사의 전설로 남아 있다.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모네는 유럽연합의 출발인 유럽철강공동체를 설계했다. 모네는 때를 잘 아는 인물이었다. 오랜 차별과 억압의 시대를 넘어 화해를 이룬 넬슨 만델라와 데 클레르크 대통령도 빼놓을 수 없다. 두 사람은 협상의 기본 원칙인 신뢰와 인정을 바탕으로 대타협을 이루었다.

물론 준비 없이 서두르거나 리더십 부재로 실패한 협상도 있다. 캠프데이비드 중동평화협상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중재자였던 지미 카터 대통령은 성공했고 협상의 당사자인 안와르 사다트 이집트 대통령과 메나헴 베긴 이스라엘 총리는 상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고집만 부리다 끝난 이 협상 이후 아직까지도 중동에는 평화와 오지 않았다.

〈휴머니스트·3만2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여성이 읽어야 할 최고의 미스터리 작품



블랙 오로라

오사 라르손 지음

24개국에서 550만 부 판매, 영화화 및 드라마화 됐던 소설 '블랙 오로라'가 출간됐다. 북유럽 대표 스릴러 작가인 오사 라르손이 펴낸 이 장편소설은 오프라 윈프리 쇼가 선정한 '여성이 읽어야 할 최고의 미스터리' 작품이다.

주인공은 조용하지만 열정과 추진력을 지닌 레베카다. 스톡홀름에서 세무변호사로 일하는 레베카는 이른 아침에 전화 한 통을 받는다. 옛 친구 산나의 남편 생 빅토르가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던 교회 계단 아래에서 참혹한 시체로 발견되었기 때문

이다.

빅토르는 9년 전 사고로 심장이 완전히 멎었다가 다시 살아난 후 종교적 계시를 받고 키루나의 세 지역 교회를 통합했다. 또 저서와 설교 비디오 판매를 통해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 레베카는 그의 누나 산나와 절친한 사이였으며 사람들은 그녀를 빅토르의 연인이라 여겼다. 하지만 레베카는 어떤 사건 때문에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고향을 떠났다.

소설의 원제이기도 한 '태양 폭풍'은 태양에서 방출되는 미립자의 흐름을 말한다. 전하를 띤 입자들이 극지 상공의 대기에 진입, 공기 분자와 반응해 빛을 내는 현상이 바로 오로라다. 환하게 빛나는 오로라의 이면에는 수많은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 오로라는 고통의 시간을 겪을수록 더욱 강하고 단단해지는 주인공 레베카의 모습과 오버랩된다. 〈arte·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담력 큰 병사가 사용한 무기 '당파'를 아시나요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

최형국 지음



E. H. 카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대화라고 했다. 끊임없이 재해석되고 소화되면서 새로운 의미가 부여되는 분야가 역사다.

사극은 과거를 현재에 불러들이는 가장 큰 장이다. 문제는 사극의 영향력에 비해 고증은 허술하다는 점이다. 그 시대와 상황에 맞지 않는 장면들이 당연하게 펼쳐지고 있는데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 역사 공부에 관심이 없거나 지식이 부족한 시청자들은 잘못된 정보를 가감 없이 받아들인다.

사극 속에 나오는 군사사와 무예사 오류를 분석한 책이 나왔다. '진정한 조선사', '조선무사'와 같은 교양 역사서를 펴냈던 최형국 박사의 '조선의 무인은 어떻게 싸웠을까?'는 고증 오류를 지적한다.

또한 사극의 고증 문제를 극복할 방법도 소개한다. 활과 한도, 갑옷과 투구의 모습 그리고 착용법, 전술과 지휘체계에 까지 다양하다. 단순히 역사서와 그림 등 사료를 보고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저자가 직접 활을 타고 활을 쏘면서 고증해 낸 결과다.

사극에 자주 등장하는 무기 가운데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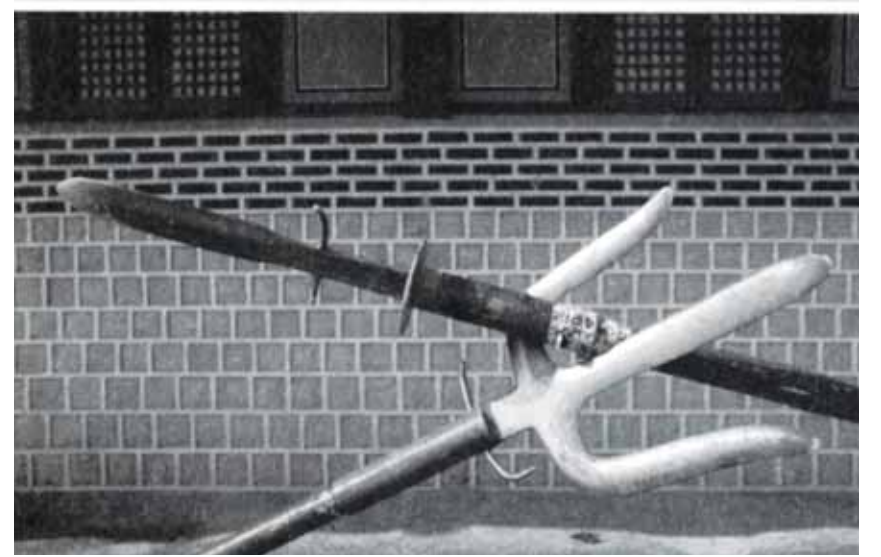
나가 삼지창처럼 생긴 당파다. 사극을 통해서만 이 무기를 접한 사람들은 그다지 무섭게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당파는 임란 이후 명나라를 통해 들어온 무기로, 담력이 강한 병사들만 사용하는 특수 무기였다. 사극에 아무런 고증 없이 비쳐지면서 현대의 민속촌이나 역사 테마파크 문지거나 포졸들이 들고 다니는 소품이 돼버렸다. 사람들은 당파를 조선군의 보편적 무기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역사 고증의 핵심은 '왜?'와 '실제로 그 시대에 가능했을까?'에 모아진다. 사극의 전투 장면은 늘 박진감이 넘친다. 창칼이 난무하는 사이를 주인공이 멋지게 뚫고 나간다. 그런데 전쟁터에 있는 어떤 이도 제대로 된 군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칼 이면 칼, 창이면 창, 조총이면 조총 한 자루가 전부다. 보급의 기본인 수통이나 비상식량도 없다.

저자는 사극이 화려한 전투 장면에만 집중한 나머지 기본을 소홀히 한다고 본다. 기본적인 무장도 갖추지 않고 전투에 임하니 이야기는 없고 피가 낭자하고 화염만 가득한 현장으로 그려진다.

심지어는 논리적으로 생각만 해도 이치에 안 맞는 장면이 부지기수다. 한 손에 칼을 들고 말을 타고 달려가는 주인공이 대표적 예다. 칼은 기병의 대표적인 무기 아니라 지금으로 치면 권총과 같은 보조 무기였다. 전통시대 기병은 활이나 창 같은 무기로 적을 공격했다.

사극에 나오는 말들도 예외는 아니다. 저자는 중마허의 전투가 아니라 17세기 이후 영국에서 교배해 만든 경마용 서러브레드라고 한다. 서러브레드는 발목이 얇고 성격이 급해 전투에 부적합하다는 것이다.



당파를 실제 사용하는 모습(위)과 당파의 날 부분을 확대한 모습. 당파는 갈라진 날을 이용해 상대의 무기를 제압하는 무기. 조선시대 병법서는 담력이 큰 사람을 선발해 당파를 쓰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인물과 사상사 제9권〉

저자는 사극 고증 오류를 극복하기 위해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시청률 지상주의에서 벗어나야 하고 '쪽 대본'이 아닌 사본 제작을 강조한다. 또한 시대

별 영역별 자문회의 상설화와 아카이브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인물과사상사·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타자를 향해 던지는 아우슈비츠 이전의 기억들



고통에 반대하며

프리오 레비 지음

아우슈비츠에서의 생환 회고록 '이것이 인간인가'로 전세계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프리오 레비의 에세이집 '고통에 반대하며'가 출간됐다. 저자의 작품이 대체로 수용소에서의 삶을 토대로 삼은 반면 이 책은 저자의 개인사를 비

롯 작고 약한 것들에 대한 애정 등을 담고 있다. 프리오 레비의 대표작들 '가라앉은 자와 구조된 자', '이것이 인간인가'에는 어두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저자의 관심은 딱정벌레 같은 작은 미물에서부터 우주비행 같은 거대한 문명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타자를 향한 사산'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저자는 나비, 다람쥐, 딱정벌레, 거미 같은 작은 동물이 담겨 있다. 마치 생물학자가 쓴 것처럼 냉철하고 정확한 레비의 생태적 지식들은 일반 독자를 놀라게 한다. 〈북인더랩·1만5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우리가 몰랐던 꿈에 관한 15가지 진실



어젯밤 꿈이

슈테판 클라인 지음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은 왜 반복될까, 지긋지긋한 악몽은 왜 사흘째 같은 장면이 계속될까, 꿈을 굳 것 같기는 한데 왜 기억나지 않을까... 프로이트도 놓칠 꿈에 관한 15가지 진실을 담은 '어젯밤 꿈이 나에게 말해주

는 것들이 나왔다. 유럽 최고의 학술 저널리스트로 평가 받는 슈테판 클라인은 책을 통해 인류가 꿈에 대해 던져온 결정적 질문에 조목조목 답하며, 꿈을 무시했던 우리에게 '우리가 꿈에 대해 알고자 하는 모든 것'과 '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쉽고 재미있게 들려준다. 1부에서는 인생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 꿈에 대해 우리가 과소평가하거나 놓쳐왔던 것들을, 2부에서는 꿈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짚어준다. 〈웅진 지식하우스·1만48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램**을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램
GwangShin Apartment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문의 **062-511-1141**

시행 1주에이저런 시공 (주)광신종합건설

광주·전남 남가발

대산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NAVER 주소(인) 대산프리모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타운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대산프리모가발